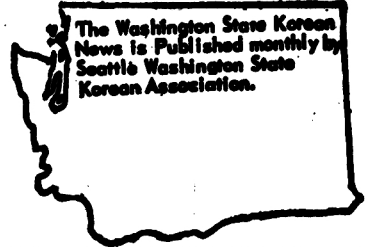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호 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 11월 18일

교포 여러분,

지난 17일 제 8 회 한인회 총회에 한인회 창설이때 처음으로 300여 교포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교포들께서는 진지하고 섬의있게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발언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안 병용 선생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헌 회칙 아래서는 모든 교포를 위한 임원을 선출할수 없다하여 선거 연기안을 제출하자 발의 자체를 목살하여 버리고 선거 강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선거 사퇴를 맡으신 김 재오 선생님께서는 교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거 강행 찬성과 반대를 표결에 부치자 하여 표결 결과 61 대 99 로 선거 강행이 부결 되었던 것입니다. 선거 연기가 결정되고 임반 호의 사항에 들어가 장신재 선생님께서 선거 대책 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자 구 법회 선생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여 가부를 거수로 물은 결과 3분의 2 이상 절대 다수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선생께서는 이를 목살하여 버리고 다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자 하기에 교포가 이에 불응하지 않고 투표에 임하려고 투표장으로 가던중 순간적으로 산 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교포들께서는 한분도 동요없이 냉정한 이심으로 회의 계속를 주장하여 김 점입씨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포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한인회를 위하여 애써 오신 선배님 여러분, 불행 스텝게도 구 회장단과 이사진의 불신임 결의로 말미암아 수습 대책 위원회가 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한인회는 여러분 모두의것 입니다.

우리 수습 대책 위원회는 앞으로 회장단과 이사진이 선출될때 까지 7 천여명이 넘는 이 교포 사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표하는 법 교포적 한인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교포 여러분 이 중대한 과업을 완성할때 까지 우리 다 합께 분투 하십시오.

수습 대책 위원회 위원장 드림

수습 대책 위원회

고문 이창희

위원장 오용덕

부위원장 이순모

부위원장 김심동

위원 임철신 안병용 장신재 김정일 고장수 최범수 박제인 당병석
정철식 (무순)

시야를 - 화싱촌주 한인회 수습 대책 위원회는 지난 17 일 제 8 회 정기 총회 집무 총회 장소에서 회집하여 오용덕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고문에 이창희 부위원장에 김심동이 순모씨를 각각 선출했다.

제 8 회 시야를 - 와싱턴주 한인회 하반기 회의록

1974년 11월 17일 제 8 회 한인회 정기 총회 밤 8 시 반 이후에 회의록을 인계 받아 기록한다.

8 대 회장단 선거 여부의 투표 결과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99대 61로 부결됨을 선거 관리 위원장 대리 김 재오 씨가 선언하다. 이어 사회봉을 옮겨들은 구 법회 회장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자동 해산을 선언하다. 선거에 관한 회칙수정을 포함한 동의안 즉 선거 대책 위원회를 즉석에서 구성하고 향후의 한인회 정 부회장 선거 및 회무처리를 대행 시키자는 안이 동의 재청에 의해 성안되다. 긴급 동의로 폐회 동의안이 들어왔으나 가부 표결에 의해 부결되다. 이에 회장은 폐회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선거에 관한 회칙 수정을 포함한 선거 대책 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가부에 부치다. 발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거수가결한 결과 찬성 표수가 3분의 2 가 넘었음에도 의장이 가결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할 때 이 선복 부회장과 잠시 이야기하고 사회봉을 놓고 산회 하자하며 사회를 포기하다.

이때에 미리 배치 시켰던 두명의 미국 무장경관도 철수시키다.

이어 총무 이 순모씨가 사회봉을 들자 총무는 임명 입원이므로 그에게 임시 의장 선출 사회권을 주기로 동의 재청하여 성안되고 가부에 의하여 가결되다. 이에 이순모씨의 사회하에 김정일씨가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다. 김 정일씨는 속회를 선언하고 임시 서기로 장신재씨를 임명하다.

현회칙은 주 와싱턴 7 천여 교포가 다 참석하기에는 너무 제한되고 모순성이 있음으로 현회칙의 폐기확 이사진 및 회장단 불신임안, 한인회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에게 회장단 선거와 모든 회무 처리를 회장 선출시가지 위임하기로 하는 동의안이 재청을 얻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임시 의장은 위의 동의안이 가결됨을 선언하다.

한인회 수습 대책위원 선출 방법으로 구두 추천하여 득표순으로 심명을 선출키로 가결하고 추천 및 투표한 결과 14 명 후보들의 득표차가 극소하므로 임시 의장이 14명 모두를 받는것이 어더냐고 물으매 동의 재청이 있어 가부로 가결되고 14 명이 수습 대책 위원으로 선출되다. 이에 의장은 다음과 같이 대책위원 명단을 공포하다. 이창희, 오웅덕, 이순모, 김실동, 임철신, 안병용, 장신재, 김정일, 고창수, 최법수, 박제인, 당병석, 정철식

폐회 동의안에 재청있어 가부를 물으매 가결되니 의장이 폐회선언하고 애국가 제창후 폐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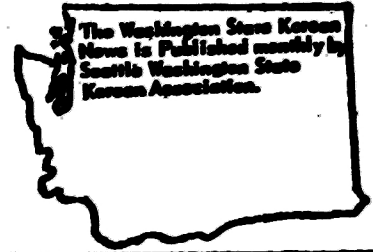
임시위원장 김 정일
임시서기 장 신재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아리랑 밤 초대기 말씀

사사다산 했던 갑인년도 이제 몇달을 남겼습니다.

이해가 다가기전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한인회에서 아리랑의 밤을 씨아를 시내에 있는 불립픽 호텔에서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종전의 아리랑 파티가 일부 특수층만이 즐길수 있는 순서로 치우쳐 있던것을 시정하여 모든 교포들이 가족까지 동반해서 다함께 즐길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하자는 교인 여러분의 제안을 받들어 전하는 다른 순서와 분위기로 여러분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가쁜 생활중에 일년에 한번이라도 우리 한인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라나는 그세들도 만나게 하여 고맙든 이국 생활의 리포도 하면서 송구 영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리랑 밤에 특별 초청 카린으로 씨아를 시장 "웨스 얼만" 씨에서 잡석 하며 풍요로 해주시는 것이라 우리 나라의 인기 가수가 멀리 한락의 도시 라스 베가스에서 모셔서 한국인 교포를 아꼈던 선사라여 으일 것이라 우리 씨아를과 타포아 교인 중에서도 뛰어난 무용가와 가수들의 출연도 있겠습니다.

1부에도 교인 여러분을 위하여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 되였사오니 춤과 노래에 소질이 있으신 분등께서는 출연 하시어 아꼈던 소질을 발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장수무애 시간에는 한국 고유의 장수 반주가 있으며 온가족 함께 흥얼하는 가족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대잔치를 위하여 뜻있는 옥리자들께서는 이번 아리랑 밤의 준비 일체를 후원 하시어 교인 여러분을 애용하시어 무효로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오니 갑인년 마지막날의 한인족의 대잔치에 부디 왕얼 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시옵기 바랍니다.

아리랑 밤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드림

선게공고

28일 아리랑 밤에 회장단 투표가 있겠습니다.



아리랑의 밤
ARIRANG NIGHT

1974.12.28 밤 7시

**장소 : OLYMPIC HOTEL GRAND
BALL ROOM**

4th SENECA SEATTLE.

한민족의 대잔치 아리랑밤에

씨아틀 시장

Wes UHLMAN씨 참석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The Honorable Mayor
and Mrs. Wes UHLMAN are
coming to ARIRANG NIGHT.

P.S. 라스 베가스 에서 온 조국의
인기 가수 공연!

<입장료 없음>

장소: 씨아틀 올림픽 호텔
OLYMPIC HOTEL
4th & SENECA

아리랑 밤의 순서

LAS VEGAS 로 부터 온 고국의 가수가
노래와 춤을 선사 합니다.

와싱톤주 7천 한인의 대합창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무대.

개인의 장기와 노래자랑.

태권도 6단의 격파 묘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한 장수무대.

댄싱 파티.

행운상 추첨.

아리랑 밤 준비 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드림.